



영무건설, 정읍 인재 육성장학금 5000만원 기탁

중견 건설사 ㈜영무건설이 정읍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정읍시민장학재단에 5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 상생 의지를 밝혔다.

기탁식은 지난 6월 30일 정읍시청에서 열렸다. 영무건설 측에서는 김동월 대표이사과 박치원 전무가 참석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이학수 시장은 따뜻한 나눔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동월 대표이사는 “지역 발전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며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준건설, 고향사랑기부금 · 장학금 각 500만원 전달

정읍 기반의 ㈜준건설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동참하며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같은 날 정읍시민장학재단에도 500만원의 장학금을 함께 기탁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지난 2일 정읍시청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한상남 대표와 박재성 이사가 직접 참석해 기탁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부부는 성금 전달을 넘어, 고향에 대한 애정과 지역 인재에 대한 관심을 함께 담은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한상남 대표는 “고향에 대한 책임과 정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읍과 함께 성장하며,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디딤돌 봉사단체, 어려운 이웃에 김치 전달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이 무더운 여름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김치 1.9톤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디딤돌은 3일, 남부노인복지센터로부터 후원받은 김치 1,920kg(시가 1,152만원 상당)을 △우리들사랑요양병원(420kg)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500kg) △삼성휴먼빌(500kg) △호성보육원(500kg)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휴먼빌에는 정북현대축구단에서 후원한 축구공 30여 개도 함께 전해져, 아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했다.

박치윤 디딤돌 회장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아 이번 김치 나눔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전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인사

전주시청

◇부이사관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서기관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상하수도본부장 이기섭 ▲도시관광생태학습본부장 박남비
▲덕진구청장 김종성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문기

순창군청

◇4급 승진 ▲경제산업국장 도광택
▲행정복지국장 신찬우
◇5급 직위승진 ▲순창읍장 이태호
▲인구정책과장 서은희 ▲상하수도과장 최동열, ▲복합면장 강민정 ▲환경위생과장 고진석 ▲농업기술과장 송경석
◇5급 전보 ▲주민복지과장 문효녀 ▲풍산면장 김선희 ▲체육진흥사업소장 김성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설순웅 ▲건설과장 황정만 ▲안전재난과장 한정만

알림

▲김양욱 교수 스피치 웅변교육 50주년 기념회= 일시: 5일(토) 오후 7시, 장소: 알렌시아 웨딩홀(평화동), 주최: (사)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지부, 연락처: 063-286-6676, 231-6669

조재혁 교수팀, 생성형 AI 기술세미나 ‘우수논문상’

의료 특화 언어모델 파인튜닝 연구…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 제시

조재혁 교수

현준서 석사과정

전북대학교 조재혁 교수와 현준서 석사과정생(공대 소프트웨어공학과)이 최근 열린 ‘2025년 (사)ICT플랫폼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생성형 AI 기술세미나’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현 석사과정생은 「Quantized Low-Rank Adaptation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의료 언어모델 fine-tuning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 논문은 제한된 자원 환경에서 대형 언어모델을 효율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기법 중 하나인 ‘Quantized Low-Rank Adaptation(QLoRA)’의 핵심 하이퍼 파라미터가 의료 데이터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QLoRA’는 언어모델 파인튜닝 시 전체 모델이 아닌 일부 파라미터만 수정하는 PEFT(Parameter-Efficient Fine-Tuning) 기법의 일종으로, 모델 크기를 줄이는 ‘양자화’와 훈련에 필요한 자원을 줄이는 ‘LoRA’를 결합한 방식이다.

구조는 동일하지만 다른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모델인 ‘Gemma3’와 ‘MedGemma’이라는 두 모델을 의료 언어모델 파인튜닝 과정에서 QLoRA 하이퍼 파라미터인 r(저차원 행렬 차원)과 α(출력 스케일링 계수)의 변화가 학습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의료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MedGemma가 일반 모델보다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학습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 연구 성과는 향후 의료 현장에서의 감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생성형 AI 기술의 실용적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

“지역 사랑 금융, 고향사랑기부로 실천”

JB금융그룹, 본청 포함 7개 지자체에 기부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도청에서 JB금융그룹 계열사인 JB우리캐피탈이 전북자치도 본청을 포함한 7개 시군에 총 1,85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는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송상재 전북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원호 전북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최재원 JB우리캐피탈지부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지속적인 참여 확대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기탁식은 고향사랑기부라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 중인 전북은행이 자발적으로 JB금융그룹 계열사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마련됐다.

기탁에 참여한 JB우리캐피탈은 총 179명의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의지를 실천했으

며, 민간 금융사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기여 모델로도 주목 받았다.

또한 전북은행은 올해 초 1,271명의 임직원이 약 1억 3,800만 원을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 기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범적 민간 참여사례를 선도해왔다. /이만호 기자

진안군 귀농귀촌 청년캠프, 지역사회 교류·나눔 실천 앞장

아동놀이터 체험 등 35개 프로그램 진행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운영하는 귀농산촌 청년캠프 ‘꿀벌활동단’이 지역사회 교류와 나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꿀벌활동단’ 청년캠프는 예비 귀농·귀촌 청년들이 진안군의 문화, 농업, 정주 여건 등을 직접 체험하며, 실질적인 정착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구성된 3주 과정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는 지난 6월 23~7월 11일까지 총 3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지역 농산물 활용 요리 수업을 통한 지역 소방서 음식 나눔, 청년농부 농장 일손 돕기 등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청년들은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정착 이후에도 나눔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30일에는 청년캠프 교육생 7명이 진안군 안전한 동물이터를 찾아, 교육과정 중 익힌 제과제빵 기술을 활용해 ‘빠빠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년들은 지역 아동들과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나누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역사회 소통을 경험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체험을 넘어 예비 청년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착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있다”며 “청년캠프가 지역사회와 청년들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캠프 참가 후 진안에 정착한 3명의 청년 귀촌인들은 지난 7월 1일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을 통해 직접 제작한 천연 모기퇴치제 400여 개를 진안군 내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청년들은 “진안군의 일원으로서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주생면, 찾아가는 마을간담회 열어

남원시 주생면은 시민중심 적극행정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간담회’를 열어 주민과 소통평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 마을간담회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해 관내 18개 마을을 순회하며 주요 시정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정설명에서는 △제95회 춘향제 참여에 대한 감사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개최 △특목 및 태풍·호우 대비 행동요령 등과 주생면 현안사업인 등을 설명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5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익산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창소방서, 119HERO 구급대원에 표창 수여

고창소방서는 3일, 구급 현장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헌신을 보인 구급대원 4명에게 ‘119HERO 구급대’로 선정해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표창을 받는 대상자는 소방위 김희종, 소방장 이지민, 소방장 장재필, 소방사 박민수 등 총 4명으로, 이들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전문처치와 자발순환회복(ROSC) 유도 등 구급활동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며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HAN 선교회, 진안군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HAN 선교회(담임목사 박철홍)는 3일 진안군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진안군청 부군수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HAN 선교회 박철홍 담임목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진안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영환 부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HAN 선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 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HAN 선교회는 지난해부터 진안군에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200만원의 성금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기로 해 지역사회 나눔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진안군은 이날 전달받은 성금을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부안경찰서, 전문기관 합동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부안경찰서(서장 이영휴)에서는 3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대한노인회 부안지회 회원 150여명을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부안경찰 뿐만 아니라 전북경찰,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운전면허시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교통문화연수원 등 도내 5개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운전면허 갱신, 홍보용품 전달했다.

부안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앞으로도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펼쳐 보다 안전한 부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하서농협, 농촌왕진버스 행사 실시

하서농협(조합장 기세원)은 지난 2일 하서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농민을 위한 ‘농촌왕진버스’ 행사를 실시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농협중앙회가 공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을 직접 찾아가 무료 이동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예수병원, 원광대치대병원, 더스토리안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양방진료, 치과·안과 검진, 초음파, 수액주사, 심전도, X-ray 등 전문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조합원 250여명이 진료를 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정환 전북농협본부장, 조상완 농협 부안군지부장이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기세원 조합장은 “병원에 자주 갈 수 없는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행사로 예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다”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